

39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콩

자 료 · 법인단체 의료보험조합

1. 증풍

콩을 1되 가량 삶아 즙을 만들어 수시로 마시거나 이 즙을 엇갈이 달여 먹으면 좋다. 갑자기 온 증풍은 대개 언어장애를 수반하고 이때 가족들은 환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하게 된다. 옛날부터 시행해온 민간요법이 현대에도 적용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콩을 삶은 물이 열을 퇴치하는데 좋다는 처방은 한방에서 상식으로 되어 있다.

2. 변혈

한방에서는 장출혈·치질출혈을 통틀어 변혈이라고 한다. 변혈이 심한 환자에게는 검은 콩 1되를 연기가 날 정도로 볶아 가루로 만들어 따뜻한 술에 넣었다가, 콩가루를 버리고 술을 마시면 효험이 있다.

3. 설사

콩 2되를 볶아서 백출(한약제) 약 19g과 함께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매 회 세 숟가락씩 먹으면 좋다. 이 가루를 2일 동안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2일 정도 더 먹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4. 식중독

술 2홉 분량에 계란 노른자 1개를 넣고 콩 37알을 갈아 가루를 섞어 단수에 마시면 좋다. 특히 여름철에 식중독을 대비해서 각 가정에서 콩을 비치해 두면 구급약으로 쓸 수 있다.

5. 객란



날콩을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미숫가루 먹듯 한 숟가락씩 먹으면 좋다.

6. 수종

수종이란 체내에 수분이 과잉 정체한 형태를 말한다. 콩 5되에 물 1말을 넣고 달여 8되로 줄인 다음 콩을 건져내고 콩 삶은 물에 8되 분량의 술을 부어 4되로 줄인다. 이 물을 하루에 3번, 1대접씩 마시면 체내에 정체된 과잉 수분이 오줌으로 나온다.

7. 전신부종

검은 콩 1되에 물 5되를 넣어 잘 삶아 물이 3되 분량으로 되게 한다. 여기에 술 5되를 넣고 장시간 달여 3되로 되게 한다. 이 물을 하루에 세 번, 따뜻하게 해서 마신다.

8. 요통

콩 2되를 물에 넣어 적당히 불린 다음 이 물먹은 콩을 뜨겁게 볶는다. 물먹은 콩이기 때문에 분량도 늘어나고 열기도 더 많아지는데, 이것을 자루에 넣어 허리에 붙이면 요통을 씻은 듯이 잊게 된다. 콩이 식으면 뜨거운 것으로 갈아넣어 찜

질을 반복하면 좋다.

9. 복통

콩 2되를 볶아 3되 분량의 술에 넣고 술이 2되 분량으로 줄 때까지 줄인 다음 이것을 마신다.

10. 각기

콩 1되에 3대 분량의 물을 넣어 진하게 달인 다음 이 즙을 마신다.

11. 사태(死胎)

사산(死産)을 하거나 사태가 나오지 않아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 사태가 나오지 않아 생명이 위험한 산모에게는 검은 콩 3되를 초와 함께 진하게 달여서 단수에 마시도록

하면 사태가 나온다.

12. 비상독

비상독을 마셨을 경우에는 아무 콩이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콩을 삶아 그 즙을 마시면 독기가 퍼지는 것을 막아 준다.

13. 혈변증

콩을 찌서 자루에 넣고 배개를 만들어 배고 반듯이 누워 수건을 뜨겁게 하여 눈을 가리고 잠을 청한다. 콩찌음 한 배개가 식으면 새 것으로 바꾸어 반복한다.

14. 소갈

검은 콩 1되 분량을 소의 쓸개에 담가두었다가 100일 동안 건조시킨 다음 먹으면 즉시 낫는다.

15. 신허(腎虛)

검은콩을 볶아 분말로 만들고 천화분(하늘타리뿌리의 가루)과 등분을 섞어 오동씨앗 크기의 환약으로 만들어 매 회 70알씩 먹으면 좋다. 주의할 것은 이 환약은 반드시 검은콩을 갈아서 쏘 죽과 함께 먹어야 하며, 하루에 아침·저녁 두 번 복용한다. ㉞